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장 철 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실천의 요구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허공에 뜬 리론, 실천에서 검증되지 못한 리론이나 지식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단행본 9 페이지)

현시기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실지 써먹을 수 있게 가르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을 비롯한 실천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교수사업에 적극 구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나서는 몇가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나서는 문제는 첫째로, 자본주의경제상황을 미화분식하는 기사들에 대한 번역을 옳바로 하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는 사회주의경제와는 달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는 인민대중에 대한 수탈의 악순환으로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경제기사글에서는 그 어떤 긍정적이며 인민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없다. 그러나 부르조아신문들과 잡지들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적경제정책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실업문제 등을 가리우고 미화분식하는 경제기사들이 적지 않게 실리고있다.

실례로 영어경제기사글들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해온 자본가(capitalist)를 실업가(businessman)로 바꾸어 쓰는것을 들 수 있다.

례: welfare state 《복지국가》 →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국가

industrial reserve army 《산업예비군》 → 실업자대군

undesired resignation 《비자발적사직》 → 의무적퇴직

이외에도 영어경제기사글들에는 자본주의사회와 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헐뜯는 표현들도 적지 않게 나온다.

례: The crisis of confidence in the euro zone showed no sign of abating as the yields on Italian and Spanish ten-year government bonds jumped again to well above 6%, increasing the countries' borrowing costs. Investors are worried that last month's second bail-out for Greece will not stop the contagion. One concern is that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does not have sufficient funding to rescue Italy and Spain, and that officials are moving too slowly to implement the new powers granted to the EFSF to buy up the debt of troubled economies.

(이탈리아와 에스빠냐의 10년기한 공채의 리득금이 6%를 훨씬 넘어서고 국가자금대부원가가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유로사용지대에 대한 불신용위기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지난 달 두번째 금융위기해소가 그의 전파를 막지 못할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다.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유럽금융안정협회가 이탈리아와 에스빠냐를 구원할만 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공무원들이 유럽금융안정협회로 하여금 난관에 직면한 경제들의 채무를 신세력들이 사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질질 끌고있는것이다.)

우의 실례에서는 일시적으로 해소된 그 리스의 금융위기와 그로부터 시작된 련속적인 금융위기전파를 단어 《bail-out》(병보석)과 《the contagion》(전염병)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사태의 심각성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병보석》이나 《전염병》으로 그대로 옮긴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경제문제를 론하는 글전반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

또한 《officials are moving too slowly》라는 표현은 사실상 국가공무원과 관리들의 직무태공에 대한 《점잖은》 평가이며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경제를 놓고 《troubled economies》(말썽많은 경제)라고 유순하게 표현한것 역시 미화분식이다. 따라서 우리 말로 옮길 때에는 《사업을 질질 끌고있는것이다》와 《난관에 직면한 경제들》이라고 그 본질적심각성과 진상이 드러나게 표현해야 한다.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영어경제기사글에서는 에두름법을 리용한 우회적 및 간접적 표현들을 많이 리용하고있으며 그것은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실태를 조금이라도 애써 가리우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는 이러한 단어표현들에 담긴 뜻을 옳게 파악하여야 하며 옮김표와 《이른바》와 같은 표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일수록 그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번역하는것과 함께 자본주의경제의 취약성과 반인민성이 드러나게 예리하고도 신랄한 표현들을 골라써야 한다.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나서는 문

제는 둘째로, 영어경제기사글의 본문에서 어조를 정확히 찾아쥐고 번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본문의 색깔 즉 찬양인가, 비판인가, 중립인가 혹은 동정인가 등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맞게 번역의 전반흐름을 통일시켜 번역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기사글이라고 하여 실무적이고 요점적인데만 취중하면서 본문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번역이 딱딱하고 단조로우며 문맥이 잘 통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글의 어조로 되는 몇개의 표현들만 먼저 파악하고 글전반의 사상을 간파한 기초우에서 번역에 달라붙어야 한다.

예: Food industry: Woes of Consumers

Some manufacturers in the food industry using tinplates as a packaging material for their products are nowadays taking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clamping of regulatory duty on secondary waste tinplates: they have raised the prices of their products on pretext that the price hike was inevitable, as their cost of production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government's action.

Interestingly, the manufacturers of tinplates in the country have announced that their products are not only enough to satisfy the demands of domestic market but also they found markets in the foreign lands due to low cost and comparatively better quality. There is, however, another aspect of the state of affairs: the use of secondary waste tinplates, as a packaging material, is high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According to the standards set by GMP for the secure packaging of food

items, the container must be secure against the entry of microorganisms and that it must maintain the commercial sterility of its contents after processing. It is recommended that cans should have food grain tin coating of 5.6mg to 8.4mg/cm², depending on the nature of food item. However, SSG Pakistan (Private) Ltd., in one of its detailed report of 1999, has revealed some appalling results of laboratory tests of some food packing cans: sheets were corroded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the food item was found containing rust granules that could lead to the production of various kinds of toxins.

What it suggested was that prime quality tinplates should be used to make the product safe for human consumption.

우의 실례에서 밑줄을 친 부분들(woes of consumers, clamping, pretext, aspect of the state of affairs, high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revealed appalling results, corroded internally and externally 등)은 자본주의사회현실을 신랄히 폭로하는 표현들로서 이것만으로도 오직 리운만을 추구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건강도 안중에 없는 자본가들의 탐욕이 낳게 될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경제기사글이라는것을 인차 알수 있다. 따라서 글전반의 이러한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번역을 지향시킨다면 필자의 사상과 의도가 명백히 안겨오는 다음과 같은 번역문을 도출해낼수 있다.

(《식료업체: 소비자들의 원쑤들》

양철판을 제품포장재료로 리용하는 식료업체의 일부 생산자들은 최근에 2차폐기 양철판과 관련하여 통제외무를 더욱 강화

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를 악용하고있다. 정부의 조치때문에 생산원가가 늘어났으므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구실밑에 상품가격을 올려오고있는것이다.

흥미있는것은 국내양철판생산자들이 자기들은 국내시장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만큼 제품을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원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질이 더 좋은것으로 하여 해외시장을 물색했다고 발표한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 2차폐기양철판들을 포장재료로 사용하는것은 인체의 건강에 대단히 유해롭다.

식료품안전포장과 관련하여 GMP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포장용기는 미생물의 침습을 받지 말아야 하며 가공처리를 통하여 내용물의 상업적무균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통줄임통들에는 식료품의 종류에 따라 1cm²당 5.6mg으로부터 8.4mg까지의 알곡용기 양철박판을 씌워야 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SSG유한주식회사는 1999년에 발표한 한 구체적인 보고서에서 일부 식료품포장통줄임들에 대한 끔찍한 실험결과를 폭로하였다. 양철박판들의 내외부가 부식되어있었고 식료품에는 각종 독성물질들을 산생시킬수 있는 녹립자들이 들어있었다.

시험결과는 사람들이 소비할 식료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려면 고급양철판이 리용되어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나서는 문제는 셋째로, 은유적표현수법에 주의를 돌려 번역을 잘하는것이다.

은유법은 표현성과 형상성이 매우 높은 어휘문체론적표현수법으로서 그 번역에서 높은 기교를 요구하며 종류가 다양해진 영어경제기사글에서도 그중 많이 쓰이는것으로 하여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한다.

영어경제기사글에 쓰인 은유적표현수법에 대한 번역에서는 우선 원문에 쓰인 은유적표현수법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여도 우리 말에서 그 형상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그대로 번역하여야 한다.

례: We're going to weed out the less profitable items in the product line.

(우리는 상품항목에서 리윤이 나지 않는 상품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 한다.)

우의 실례는 어느 한 회사가 자기 제품들의 일부가 리윤이 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로부터 그 제품들을 생산하지 말데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글의 한 대목이다. 레문에서는 생산을 중지한다는 식의 어휘가 아니라 《뿌리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 《weed out》의 비유수법을 씌으로써 생산의 중지와 생산을 위한 흐름식설비 등 모든 생산공정들을 말끔히 가셔버리려 한다는 효과를 나타내고있으며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번역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영어경제기사글에 쓰인 은유적표현수법에 대한 번역에서는 또한 영어은유적표현수법에 대하여 최대한 형상적인 의미를 띤 어휘들을 재치있게 선택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례: The banks have been riding on the crest of a wave for longer than anyone expected.

(은행들은 모두가 예상했던것보다 더 오랜 기간 순풍에 돛을 달아왔다.)

우의 레문은 다른 기업체들은 경제부진 상태에 들어서고있지만 은행들은 예상밖으로 여전히 활기를 띠고있는데 대한 경제기사글의 한 대목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체육경기의 한 종목인 파도타기에서 쓰이는 어휘 《ride on the crest of a wave》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금융업의 중심지인 은행이 융자를 통해 많은 리득을 보고

있다고 비유적의미를 나타내었다.

만일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여 《은행들이 모두가 예상했던것보다 더 오랜 기간 파도마루우를 달리었다.》라고 번역한다면 내용이 정확히 안겨오지 않으므로 우리 말 어감에 맞는 표현을 찾아 《순풍에 돛을 달다》라고 번역해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영어경제기사글의 번역에서 나서는 문제는 넷째로, 고유명사, 랑어 등의 번역에서 규범을 정확히 지키는것이다.

영어경제기사글은 단체 및 기관명과 지명, 직함과 기타 고유명사, 랑어들을 많이 쓰는 특성을 가지고있으므로 그에 맞게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

고유명사, 랑어 등의 번역에서는 우선 단체명과 지명에 대한 번역규범을 지켜야 한다.

각종 단체, 기관명은 우리 말로 뜻을 찾아 대역을 줄수 있는것 번역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음역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 널리 알려진 단체, 기관명은 우리 말로 풀어 번역해도 되지만 새로운 단체, 기관명은 원칙적으로 대역어를 먼저 주고 원어명을 주어야 하며 랑어의 경우에는 대역어를 주고 랑어의 음역과 함께 원어명을 해설로 주어야 한다.

례: UNSF(United Nations Special Fund)

유엔특별기금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국제규격화기구

LIBOR(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런던은행간 리자를

CIM(computer-integrated manufacture)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

Intelsat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인텔샹트)

세계적으로 경제와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및 기관들로서 그 명칭을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와 같이 랑자들의 결합형식으로 쓰이는것들이 적지 않다. 실례로 인텔샹트도 국제상업위

성통신기구로서 발족할 당시에는 상업용 위성통신분야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제적단체였으나 이른바 《자본의 국제화》, 《기업활동의 국제화》의 간판밑에 세계적판도에서 위성통신부문을 장악하려는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합병기업들이 미국의 판 아메리카항공회사(판 암, PanAm)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위성통신기구인 PanAm-Sat를 무음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인텔샹트와 판암샹트로 구분하지 않고서는 명확한계선을 긋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라는 일반적인 명칭만으로는 Intelsat라는 단체가 안겨오지 않으며 주해를 우리 말로 반드시 달아주어야 한다.

단체, 기관명에서는 해당 나라에서의 부류와 지위를 고려하여 영어명칭을 번역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례로 어느 한 나라의 기관명칭은 그 나라말로 《기구》로 되어있지만 영어대역은 foundation 즉 《재단》으로 주었다. 그리고 《위원회》도 영어로는 그 권능과 운영방식에 따라 committee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commission 이라고만 표현해야 할 경우가 있다.

각이한 부류의 회사명칭들에 대한 번역은 영어경제기사글에서 가장 많이 부탁칠 수 있는 애로들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을 하는 단체들의 발전력사를 더듬어보면 단독기업(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주식회사(stock company)의 형태로 변화발전하

여왔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회사명을 정확히 옮길수 없다.

고유명사, 략어 등의 번역에서는 또한 공식직함과 직제들에 대한 번역규범을 지켜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에서 쓰이는 각 기관들에 따르는 공식직함들과 직제들은 서로 차이나는것들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정상》으로 부르는 명칭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재무상(Minister of Finance)과 재무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으로 다른가 하면 같은 영어명칭이라고 하여도 서로 다른 우리 말로 대역을 준것들(실례로 같은 secretary 라는 단어이지만 미국과 인디아의 성기관책임자를 각각 《장관》과 《서기》로 서로 다르게 번역함)이 있다.

영어단어 holding company는 《삼흥》사전에 어떤 회사의 주권을 가진 《[주주] 회사》, 《어미회사》 또는 《투자회사》로 올라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한 개의 광산을 한개의 회사가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회사들이 여러개 모인 집단을 holding company라고 하고있다. 이것은 단체의 기구구조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총회사》 또는 《련합회사》와 같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언어실천에서 많이 쓰는 영어글에 대한 번역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